

“민주당 지지” 광주 57.9%·전남 61.2%…국힘 8%대

정당 지지율

광주·전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광주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광주지역 응답자 가운데 평소 지지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8.6%), 열린민주당(8.0%), 정의당(6.9%), 국민의당(4.8%)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2.0%, 무당층은 11.9%(없음 10.6%·잘 모름 1.3%)였다.

모든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 응답이 가장 많은 가

광주 ‘민주당 지지’ 60세 이상 70.7%…50대·주부는 65%대
전남 40대 68.9%·60세 이상 65.2%·진보층 69.0% ‘민주’

운데 ▲60세 이상(70.7%) 및 50대(65.8%), ▲남성(61.4%), ▲진보층(65.2%), ▲가정주부(65.5%) 및 자영업(61.9%)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구(12.9%), ▲보수층(23.5%)에서 다소 지지도가 높았다.

전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61.2%로 가장 많았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8.4%를 기록했고, 이어 정의당 5.8%, 국민의

힘 5.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9.5%(없음 7.8%, 잘 모름 1.7%)였다. 민주당 지지는 40대(68.9%)와 60세 이상(65.2%)에서, 진보층에서 69.0%, 사무·관리·전문직 64.8%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는 ▲18~29세(14.0%), ▲보수층(16.4%), ▲학생(16.1%)에서 다소 높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여론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신년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광주와 전남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8명, 807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80%와 유선전화 20%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표본오차는 ±3.4% 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광주 4.8%, 전남 5.1%였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립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충천’ 이재명

‘실점 만회’서 ‘득점’ 전략으로… ‘미래·성장’ 신년회견 주목
‘골든크로스’ 굳히기 시도·다자토론 카드로尹 고립작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새해부터 대선 승리 전략으로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후보 확정 이후 반성과 성찰, 쇄신을 부르짖으며 정부·여당의 그간의 ‘실점’을 만회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앞서 나가기 위한 ‘득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은 이 후보 캠페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회견에서 한국 사회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실용 정부 구성, 기회 창출 방안 등을 ‘총론’ 격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발표된 공약들이 작은 것들 위주였다면,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는 규모가 큰 내용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테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기존 정책의 보완만이 아니라 적정

한 시점에 공급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유권자들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미래’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해 4·7 재보선의 경우 여당을 꾸짖는 민심이 두드러지며 회고적 투표 성격을 띠었다면, 이제 표심은 향후 5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리라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런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가 아닌 제3의 기자회견 장소를 모색하는 등 그 형식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을 굳히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지기까지 하던 이 후보는 새해에는 오차범위를 넘어 10%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영향이 크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골든크로스’ 국면에 들어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윤 후보가 연일 실언을 거듭하는 데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의 자중지란이 이어지는 만큼, 정책적인 우위를 부각해 ‘득점’에 성공한다면 이달 중에는 확고한 우위를 굳힐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자체 판단이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공세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방송사 등에 윤 후보는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토론’을 새해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후보의 강점인 정책 속도도를 부각할 기회인 데다 윤 후보만 이를 거부할 경우 혼자 회피한다는 프레임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면초가’ 윤석열

해 넘긴 선대위 내용·지지율 하락 지속·떠오르는 안철수
구두 벗고 큰절 “저부터 바꾸겠다”…安과 단일화 과제도

대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가족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 허위이익 의혹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이탈’로 요약되는 선거대책위원회 내용을 해를 넘겨서도 수습하지 못한 데다, ‘반문 깃발·정권교체’ 외 뚜렷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 일각에서도 나온다.

여기에 윤 후보가 잇단 실언과 강성 발언으로 중도층과는 멀어지는 사이, 최근 상승세를 타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치고 올라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세도 무시 못 할 상황이다. 당 안팎에선 윤 후보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의심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분출하고 있다.

당내에선 위기론이 나왔다.

선거 지휘봉을 든 김종민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에 열린 본부장급 회의에서 “윤 후보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는) 어렵다. 윤 후보가 바뀔 수 있도록 의원을 포함 여러분이 압박을 가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날 신년인사를 겸한 선대위 전체회의에선 “매우 위기”, “시간이 없다” 등 발언으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예정에 없이 구두를 벗고 큰절을 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저부터 바꾸겠다”, “부족한 점 고치겠다” 등 절박함과 위기가 감이 묻어났다.

윤 후보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연합뉴스

안철수 “단일화 생각 없어…새 시대 만형 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제가 당선되고 저로 정권교체가 돼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만형이 되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 기자회견에서 여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50년 전 산업화·민주화 시대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와 막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새 시대 만형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도덕적 문제나 가족 문제, 국정운영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 의

구심이 많다 보니 대선을 60여 일 남겨두고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지 않다. 지지 후보를 정한 사람 중에서도 언제든 바뀔 수 있던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55~60%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이하로밖에 그 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1월에 네거티브나 과거 발목잡기가 아니라 미래 담론으로 경쟁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20 SINCE 2000 전력거래소 20주년